

## | 국제동향 |

# 유럽 주요국의 노동 동향 (2018년 3/4분기)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 독일

독일의 현재 노동 시장 상황, 정부의 「숙련노동자 노동이주법(안)」 마련 및 기타 개혁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3/4분기 독일의 최근 노동 관련 동향을 알려 줍니다.

### 노동 시장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

독일의 GDP는 0.5% 증가했고 고용 인구는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경제 저성장은 올해 3/4분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실업률은 3.4%로, 특히 건강 및 노인 간호 분야에서 노동력의 부족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 시장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실업자 수는 여전히 140만 명이며, 1백만 명이 노동 시장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졸업자들은 견습 직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전체 여성근로자의 69%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 남성은 6%가 시간제 근로)

기독교 민주당(Christian Democrats, CD) 기독교 사회 연합(Christian Social Union, CSU)과 사회 민주당(Social Democrats, SPD)으로 구성된 새 정부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노동 시장 보호 구역을 목표로 삼는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 시장 접근성 증대, 숙련된 자국 및 유럽 내, 그리고 국제 노동자를 위한 전체적 노동 전략 또한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2019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실업자와 산모 지원

Hubertus Heil 노동사회부 장관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30개월 동안 장기 실직자를 고용한 회사에 더 많은 임금 보조를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최대 75%(첫 해)와 50%(두 번째 해)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독일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Franziska Giffey 장관은 아동복지 개선과 아이를 둔 엄마를 위해 2022년까지 55억 유로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에는 9월에 연방 각료회의를 통과 한 Good Kita Ac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육 시설(Kindertagesstätten)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재정적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육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육 부문의 노동 시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가정 및 보건부는 이 분야의 '인식, 노동 조건 및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작업(Konzertierte Aktion Pflege)'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교육, 산업 안전 보건,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형태의 의료, 외국인 의료, 임금 개발 등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2019년 중반까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숙련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장벽 낮추기

연방 내무부의 지도하에 연방 경제 기술부(CDU)와 연방 노동사회부(SPD)는 숙련된 제3국 국민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모색 중입니다.

「숙련 노동자를 위한 노동 이주 법(Fachkräftezwanderungsgesetz)」의 초안은 2018년 3/4 분기에 발표되었으며, 이 초안은 2019년 봄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공석 발생 시 연방 고용 기관에서 유럽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대신 고용주가 직접 숙련된 제3국 국민에게 공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제3국 국민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능력과 적절한 연령을 갖춘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특정 선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망명 희망자와 도제계약 또는 고용계약 여부는 이민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독일사용자협회(BDA)는 입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노동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공예협회(ZDH)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이와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독일노동조합연맹(DGB)도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지만 연방고용국(Federal Employment Agency)의 조기 점검 배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덤핑」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고용국의 관리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국

Brexit 협상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위치, 새로운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시스템 및 임금에 대한 파업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3/4분기 영국의 최근 노동관련 동향을 알려줍니다.

### Brexit 협상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위치

Theresa May 총리는 '18년 9월 20일 잘츠부르크 정상 회담에서 EU지도자들의 거부로 '체커스 플랜'\*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체커스 플랜은 북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유럽연합(EU) 경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모든 제품의 공통 규정집'을 유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EU의 경계에 '결합된 관세 지역'을 도입하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체커스 플랜(Chequers plan):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으로,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공산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 EU와 같은 상품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관세동맹에 잔류

잘츠부르크 정상 회담에 앞서 Frances O'Grady 노조 총회(TUC) 사무총장은 금년도 총회 연설에서 TUC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정부가 일자리와 근로자의 권리를 제공하는 Brexit 거래를 확보하지 못하면 TUC는 최종 합의 조건에 대해 대중 투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산업연맹(CBI)은 'no-deal Brexit'\*가 초래할 붕괴를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월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경쟁력, 번영 및 소프트 파워의 감소를 예측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CBI는 협상가들에게 과도기적 합의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잘츠부르크 정상 회담에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양측이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 'no-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아무런 협의 없이 탈퇴하는 경우를 의미

## 의회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요구 사항의 확대 권고

'18년 9월 17일에 하원의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위원회가 발간한 한 신규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보다 야심차고 효과적인 조치를 주창했습니다. 영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18%로,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일부 분야에서는 40%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연간 수치를 발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영국 노동력의 약 절반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므로 중소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더 클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반드시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의 제안은 노조 총회(TUC)의 지지를 받았지만 영국산업연맹(CBI)은 기업들이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수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평등 및 인권위원회(EHRC)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TUC는 EHRC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조적으로, CBI는 징벌적 제재보다는 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노동자 파업

'18.10.4. Uber Eats, JD Wetherspoon, McDonald's 및 TGI Friday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분쟁의 일환으로 여러 영국 도시에서 파업했습니다. 약 50명의 Uber Eats 배달원, Uber 운전자 및 지지자들은 일시적으로 Uber의 런던 본부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영국의 독립노동자조합과 세계노동조합의 산업노동자조합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 총평

Brexit 협상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특히 Domin Raab 장관은 정부가 'no-deal Brexit'를 위해 다음 잘츠부르크 정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I와 TUC는 그러한 결과에 강력히 반대하며 적절한 이행 약정을 포함하는 철수 협약을 촉구했습니다. 'no-deal Brexit'에 관한 보고서에서 CBI는 EU 탈퇴 투표 이후 영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CBI의 최근 산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3분기에는 기업 수출 주문량이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제 생산이 둔화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 오스트리아

최근 근로시간법 개정과 광범위한 사회 보장 개혁에 관한 정부의 법안 초안 발표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국가보고서는 2018년 3/4 분기 오스트리아의 최근 노동 관련 동향을 알려줍니다.

### 사회적 대화의 주된 논의 주제인 신규 근로시간법

최근 근로시간법 개정안은 '18.7.5. 입법되어 '18.9.1. 발효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사회적 대화를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근로시간 규정은 근로시간 유연성을 크게 향상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의 근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조는 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비엔나에서 약 10만 명의 참가자들을 조직하여 항의했지만, 근로 시간 개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2018년 가을에 시작된 연례 단체 교섭에서 새로운 정권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8.9.18. 900명 이상의 노조 단체 교섭 협상가가 비엔나에서 열린 회의 참석을 위해 만났습니다. 회의는 오스트리아노동조합연맹(OGB)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협상가에는 새로운 근로 시간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단체 교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동조합 목표에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 개별 노동자가 예측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 시간 합의
- 근무 시간 단축
- 주 4일제, 근로일에 휴가 사용 시 유급휴가, 주말 업무가 요구될 때 최소 4주 전 통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보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조는 연례 임금교섭 외에도 근무 시간 문제에 대해 추가 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 요청을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

2018년 봄,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보수주의 오스트리아 인민당으로 구성, OVP)와 우익 포퓰리스트 자유당(FPO)은 자치주의 사회 보험 제도를 전면 개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7.9.14. 사회 보험 기관 법에 대한 초안이 발표된 이후 뒤이은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보건, 산업 재해 및 연금 보험 분야의 재정 지원 기관 합병을 통해 기존 21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의 75%를 조정하여 2023년까지 행정 비용을 10억 유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행정 기관 수를 90개에서 50개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10년 이내에 추가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가정 시, 행정 직원 19,000명 중 약 30%가 축소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 보험 제도는 현재 자체 행정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축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 법안 초안에서는 의사 결정권이 노동계에서 사용자측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 보험 제도 내의 관련 의사 결정기구의 구성이 크게 변화되어 노동 조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초안의 공개 평가 기간은 '18.9.14.~10.19.까지입니다.

사회적 파트너와 전문가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노동상공회의소(AK)는 전통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단위 조직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사회 보장 개혁은 합병 비용, 의사 회의소(AAK)와 체결 할 새로운 전반적인 건강 보험 계약과 관련된 비용, 고용주의 사회 복지 비용 삭감으로 인한 비용이 21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산 하고 있습니다. AK에 따르면 추가 비용은 의료비 지출, 외래 환자 부담 및 의료 서비스 삭감의 형태로 피보험자에게 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는 계획된 개혁이 합헌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 보험 갈등에서 파생된 서비스 조항이 자기 평가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의 대부분은 정부 제안을 잠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 금속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18.9.20. 단체 교섭은 금속 노조가 사용자 측에 임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속 가공 산업은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 경제에서 모든 교섭 라운드의 속도를 정했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임금 인상률이 5% 포인트에 달하고 근무 시간과 관련한 기본 합의서의 일련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개정된 근로 시간 법에서 규정된 조항의 퇴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금속 가공 고용주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 프랑스

노동 시장 개혁, 실업 보험, 직업 건강 및 연금이 본 글의 주제입니다. 이 국가보고서는 2018년 3/4분기 프랑스의 최근 노동관련 동향을 알려줍니다.

## 전문적인 자유를 증대하는 노동 시장 개혁

'18년 8월, 프랑스 정부는 사회 모델 혁신의 2단계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9월 5일에는 '자신의 전문적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법률 2018-771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직업 훈련 및 견습에서 성 평등 및 직업 구인 개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 보험 제도 개혁의 초석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성적 및 성에 기반을 둔 폭력과의 전쟁에 관한 섹션은 의회 토론에서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50명의 직원을 둔 회사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대한 지표를 발표해야 합니다. 법은 또한 훈련 및 학습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개혁과 훈련 자금 조달 방법 (시간 단위가 아닌 유로 단위 비용)을 개정하고 직업 훈련 시스템의 관리 체계를 수정하며 견습 계약 체결, 실행 및 종료 조건을 단순화합니다.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은 ‘훈련의 권리 감소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개혁을 ‘진전’으로 환영했습니다. 노동자의 힘(FO)은 이 법이 실업보험으로부터 멀어지며 견습생에 대해 몇몇 보장만 포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O는 또한 개인 훈련 계좌를 유로로 변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인화를 초래하고 직원 권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총연합회(CPME)와 같이 일부는 고정 기간 계약을 최대한 활용하는 직업 부문의 과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려했지만, 고용주 단체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 혼합된 반응을 끌어낸 실업보험

8월말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와의 양자 회담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교류에 이어 Edouard Philippe 총리는 사회적 파트너와 ‘사회 모델 혁신 작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 프로그램에는 7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3개는 실업 보험, 직업 건강 및 돌봄 작업 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립 (Philippe) 총리에 따르면 전문직 단체 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향후 몇 개월 내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업 보험 개혁에 관해 정부는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 전, 9월에 사회적 파트너와 ‘진단 단계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불안정한 노동 수준을 낮추고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는 것)가 작성되었으며 사회적 파트너들은 최종 실업 보험 협상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실업 보험 제도를 공동 관리하는 프랑스의 주요 노조와 사용자 단체는 제안된 개혁안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총재는 고용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실업 보험 제도의 보상 규정을 변경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 총연맹(CGT)과 노동자의 힘(FO)은 ‘18.10.9. ‘정부의 이데올로기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파업에 합의했습니다.

## 정부의 산업 보건 및 연금 개혁 발표

정부는 또한 10월에 산업 보건에 관한 자문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2019년 1/4분기가 끝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는 직업 간 단체 교섭의 개시를 위한 지침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직장 건강 : 직장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전문가 합의 및 예방 시스템(13.6.19.)'을 참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상반기 전에 의회에서 논의 될 것입니다.

연금 개혁 고등 판무관 Jean-Paul Delevoye는 10월에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고 '미래 연금 제도의 기본 원리'를 제시할 것입니다. 2019년 도입될 이 법안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의 주요 매개 변수와 전환 방식'에 대한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9년 자영업 여성의 출산 휴가를 최소 8주에서 최대 16주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총국(General Inspectorate of Social Affairs, IGAS)은 육아 휴가를 2~3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총평

Macron 대통령의 인기가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의 속도는 2018년 3분기에 둔화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주목할 만한 반대 없이 개혁방안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Country profiles Q3, 2018, Germany, United Kingdom, Austria, and France, Eurofound